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1 / 5



표지 이야기

법정 어른스님은 생전에 해외여행길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해외로 입양을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셨습니다. 입적하시기 몇 해 전에는 맑고 향기롭게 이사회에서 우리 모임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길러 보면 어떠한 말씀을 던지시 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는 부모 품에서 커야 한다는 말씀에 거두어 들이셨지만 아이들에 대한 연민은 남다르셨습니다. 스님은 당신 인세 대부분을 장학금을 내놓으셨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인재로 자라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가정의 달에 들어 있는 입양의 날을 맞아 이번 오월호에 입양가정을 소개합니다.

표지 사진은 '엄마라서 행복하다'는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한연희님 식구 사진인데요. 부부와 결혼한 큰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 가슴으로 품어 낳은 자식 아홉, 이렇게 많은 식구가 한 지붕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관련기사: 가정의 달 특집 인터뷰 '엄마라서 행복해요'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1 / 5

법정스님 편지/법정	4	성직에게
이사장 말씀/현장	6	'무소유 성지순례길' 길벗이 되기를
가정의 달 특집 / 이규향	8	가정·선禪은 행복의 고향
가정의 달 특집 인터뷰/ 변택주	13	한연희·엄마라서 행복해요
산골만화 / 정태경	19	작은 가시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임	20	4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6	서울모임
	31	부산·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34	5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을 발행합니다.
2011년 5월 1일 발행 / 통권 195호 / 등록번호 라06706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석현장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진 /
인쇄처 능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6-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6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성 직 에 게

法 頂 (스님)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전보電報(십일월 이십칠일)를
오늘 오후에야 받아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요즘의 내 건강과 주위 여러 가지 형편이 나를
부자유不自由하게 만들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은혜로운 분은 작은 아버지시다.
나를 교육教育시켜 눈을 띄워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할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법당法堂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

이일저일 생각하니 내가 진 빚이 한량이 없구나.
불효不孝하기 그지없고 一.

아버지를 여윈 애통哀痛과 장례葬禮 일로 네 수고가 많을 줄
믿는다.

이제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사家事도 보살펴드려야 할
것이다.

출가의외인出家外人이라더니,

가는 길이 서로 달라 어찌지 못함이 안타깝고 죄스러울 뿐이다.
어머니를 잘 위로해드려라.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 명복을 불전佛前에 빌기로 작심作心했다.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를 향한 절절함과 남은 식구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찾아
뵙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듬뿍 담긴 사부곡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법정어른스 님께서 스님 어머니를 22년 동안 모신 동생에게 보낸 편지 글을
뒤어 엮은 <법 정스님 편지 '마음하는 아우야!>에서 엮은이 박성직님과 녹
야원 허락을 얻어 모셨습니다.

사십구일四十九日 동안 불교의식佛敎儀式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
일이다.

가신 분의 은혜에 보답報答하는 내 도리요 정성인 것이다.

이제는 집안일을 어머님과 성남이와 네가 서로 의논해
가면서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남은 식구들끼리 서로 위해가며 화합和合해서 살기 바란다.

세상일이란 꿈결처럼 덧없고 기약 없기 때문에
후회 없도록 떳떳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겨울 안거安居가 지나야만 출타出他를 할 수 있으므로
봄에 찾아볼까 한다.

어머님을 잘 모시고 위로하기 바란다.

당장에 가 뵈 수 없음이 진심으로 죄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네 수고가 많았겠다.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

1970. 11. 27 밤
법정 합장法頂 合掌



‘무소유 성지순례길’ 길벗이 되기를

-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읽고 -

玄 藏 (이사장)

“흐르는 물은 산을 내려와도 연연하지 않고 흰 구름은 골짜기로 들어 가도 그저 무심하다. 한 몸이 가고 옴, 물과 구름 같고 몸은 다시 오지만 눈에는 처음이네.”(93년 초하루 아침 백운화상 어록을 보다가 벼루에 먹을 갈아 읊겨 쓰다, 무엄거사에게 불일암주 합장) 위 계송은 법정스님께서 아끼는 재가 제자인 정찬주 작가에게 써준 내용입니다. 93년 어느 날 불일암 아침 풍경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송입니다.

작가는 법정스님 일대기인 「소설 무소유」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깊은 탐구와 선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고승 전기소설들과 사찰 문화기행은 불교문화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법정스님 삶을 본받아 화순 쌍봉사 건너편에 “이불재”라는 토굴에서 자연의 삶을 즐기며 글쓰기로 세상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작가는 대원사를 찾아와 차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가에게 전국 암자와 사찰 기행을 많이 하셨는데 법정스님께서 출가 이후 수행했던 암자와 사찰만을 테마로 엮어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화가 씨앗이 되어 인터넷 교보문고에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라는 제목으로 법정스님 숨결이 깃든 암자와 사찰을 찾아 그 당시 수행담과 사찰 풍광, 그리고 작가와 인연 이야기들을 맛깔스런 필담으로 풀어내 주1회 연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동감하고 감동 받은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2만 명이 넘는 인터넷 독자

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연재했던 내용들을 도서출판<열림원>에서 정찬주의 마음기행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수학여행가서 떠나오기 싫어 뒤돌아보며 흐느껴 울었다는 진도 쌍계사이야기, 효봉스님 모시고 행자생활 했던 통영 미래사이야기, 펜대를 바로 세우고 글을 쓰는 이는 법정스님뿐이라고 했던 성철스님과 일화를 소개한 해인사이야기, 그리고 봉은사 다래헌 시절, 송광사 불일암 시절, 강원도 오두막 수류산방 시절 이야기를 통해 스님 모습이 수채화 처럼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다시 순례하며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밉니다. 법정스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8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이 있고, 일본 시코쿠에는 1250km에 이르는 88개 사찰들을 참배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도반들이 무소유 올레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바람이 꽃이 되고, 흐르는 물이 구름으로 변하는 운수雲水 나그네 길에서 무거운 생각 짐을 내려놓고 작은 들꽃이 되어 서로 간에 맑은 향기를 나누어보면 어떨까요?

불일암에는 법정스님께서 굴참나무를 잘라 만든 ‘빠빠용 의자’가 있습니다. 빠빠용 삼행시로 정찬주 마음기행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추천 말을 맺습니다.

빠지지 맙시다. 무소유 올레길

빠지지 맙시다. 서운한 말 듣더라도

용서하며 삼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선禪은 행복의 보금^寶자리

이 규 향

이규향님은 KBS 아나운서셨고 '네 잎 클로버'를 부른 가수로, 지금은 우리말 교육과 아나운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계신다. 저서로는 부처님 가르침 정수를 '오'이라고 풀어낸 <O의 행복>이 있다.

가정은 출근했던 아버지와 등교했던 자녀들이 저녁이 되면 몸과 마음을 쉬러 돌아오는 곳이다. 가정주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거나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는 곧 가정의 불행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처럼 즐거운 여행조차도 조금만 오래되면 집 생각이 난다. 나의 할아버지는 아무런 종교가 없으셨는데도, 더러 역정을 내실 때도 있었으나 넉넉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편이었다.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거나하게 취하신 날이면 언제나 주제가처럼 주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나는 종교를 안 믿고 나 믿고 살아. 불자가 아니다마는 본심本心으로 돌아가 살고 있어요!" 훗날 내

가 불교에 다소 눈을 떴을 무렵, 할아버지는 훌륭한 재가불자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정과 불교의 선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듯하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점과 돌아가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확신이다. 즉 참 행복에 대한 보장이다. 모든 사람은 몸이 태어난 본적과 다른 곳인 현주소에서 살고 있다. 마음 역시, 어렸을 적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다. 염불念佛이란 무엇인가? '念'은 '지금' '순'과 '마음' '심' 합자이다. 염불은 내일, 한 달 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아니라 '지금마음'이 '부처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까? 합장에서 왼손이 본래마음이라면 오른손은 때 묻은 속세마음이다. 지금 속세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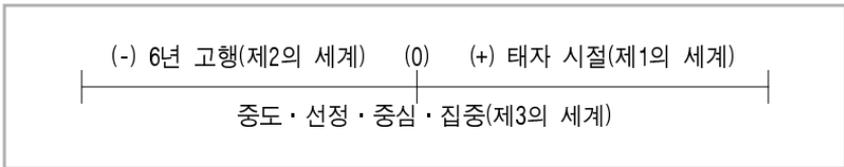
이 처음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염원이 합장이라. 불자들이 전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염주를 돌리는 것은 처음마음으로 부터의 이탈본능속성 때문이다. 불교는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학이 바탕이 된 과학종교이다. 불경 가운데 처음마음으로 돌아가면 견성할 수 있다는 경으로, 법화경 4장 신해품과 심우도가 있다. 견성은 자기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 아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 모르는 마음이 있다. 견성은 후자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법화경 4장 신해품信解品에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비유가 있다. “부호 아버지와 가난뱅이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확실하게 이해하여 믿는다”는 뜻의 신해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 부호인 아버지와 어린 시절 집을 나가 수십 년간 방랑하면서 거지생활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엄청난 재산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돌아온 아들은 자기집인 줄도 모르고 머슴살이를 한다. 어느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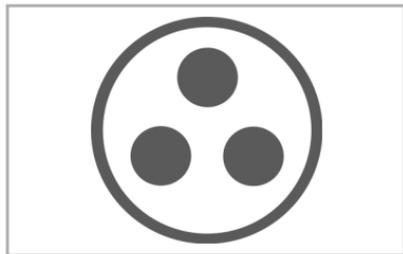
부호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죽음이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부호는 품팔이 아들에게 창고마다 가득한 보물과 금고 지키는 일을 시킨다. 마침내 임종할 즈음 부호는 국왕과 대신, 유지들을 불러놓고 선포를 한다. “이 품팔이 하는 사람은 바로 옛날에 집을 나간 내 아들입니다” 머슴살이 하던 아들은 부호인 아버지 말을 듣고 꿈을 꾸듯 정당한 상속자가 자신임을 알고 크게 기뻐하게 된다. 품팔이 하던 아들이 부호의 상속자로 선포되는데 어떤 노력이나 과정과 단계가 필요 없다. 이처럼 중생도 자신이 본래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즉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제1의 메세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인불人佛사상이다. 그리고 필자 소견으로는 부호 아버지는 선禪으로 행복의 고향이요, 머슴살이는 아들은 속세의 마음이다. 이처럼 불교의 선은 가아假我가 진아眞我로 회귀하기만 하면 온 천하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제2의 메세지로 보고 싶다.

일찍부터 선가에서는 마음 닦는 일을 소찾는 일, 심우(尋牛) 또는 소 먹이는 일, 목우(牧牛)에 비유하였다. 여기서 소는 처음마음인 선禪이라 하겠다. 근세 만해 한용운의 당호인 심우장은 불자라면 누구나 탐이 나는 이름이다. 송나라 곽암의 심우도/심우도는 10개의 원으로 된 공간 안에 소를 찾아나서는 그림으로 시작하여 견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 명저이다. 6번째 그림 기우귀(騎牛歸家)는 잘 길들여진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처음마음인 선가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건에 가짜모조품이 있듯이 행복에도 유사행복이 있다. 선은 행복의 황금률이다. 최초로 서양에 불교를 알리는 글을 쓴 중국 사람 오경웅(吳經熊)(최초로 서양에 불교를 알리는 글을 쓴 중국사람)은 선의 경지가 얼마나 호사스럽기에 선의 향연이라 했겠는가.

흔히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한다. 불교의 본질을 알려면 마음의 매커니즘(작용원리)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붓다 깨달음의 모체는 수학의 '0'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0'을, 기호일 때는 '010(공일공)'처럼 '공'이라고 읽고 숫자일 때는 '0.1(영점일)'처럼 '영'이라고 한다. 즉 붓다 깨달음의 진수는 수학의 0이므로 불교는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학의 좌표평면에서처럼 '마음자리'가 (+)에 있을 때는 '좋거나/즐겁고' (-)에 있을 때는 '싫거나/괴롭다' 그런데 마음자리가 (0)으로 돌아오면 '크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좋음', '크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즐거움'이 있는 '제3의 신세계'를 2600년 전에 새롭게 발견하셨던 것이 바로 붓다의 득도였다. 선정은 마음자리가 0에 정하고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중도의 중(中)은 곧 0이다. '도(道)'는 '처음



(首)으로 ‘가다/돌아가다(去)’의 합자로 역시 0을 뜻한다. 중심 역시 마음자리가 0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어느 외국출신 학승의 불교강의실. ‘선이란 과연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학승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영똥하게도 가지고 있던 주장자로 땅바닥을 힘껏 내려치는 ‘꽹’소리뿐이었다. 선은 언어의 길이 끊긴 언어도단의 세계라고 한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선의 설명불가는 참으로 언어도단이다. ‘꽹’하는 소리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즉 中/0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집중이요 집중은 선과 동의어이다. 남녀만남의 즐거움은 본능적인 집중 때문이요 여행이 즐거운 까닭도 새로운 문물에 대한 집중현상이다. 집중은 행복이다.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 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을 설명하는 언어이다. 교문敎門은 오늘날까지도 수학



과 같은 언어의 본분을 못하고 있다. 대웅전 지붕 옆 ‘人’자 모양의 합각에 이런 문장紋章이 있다. ‘이伊’라고 발음하고 둥근 점이 3개 있다고 하여 ‘원이삼점圓伊三點’이라고 한다. 현 불가에서는 불법승이라 한다. 그러나 본뜻은 ‘이것/기도로 얻다’는 의미로 신라 때 인도에서 들어온 산스크리트어이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은 “6년 참선기도로 ‘0/零’ 바로 ‘이것/이 명제를 얻었다’는 심상心象이다. 불교는 ‘현세<내세[종교], ‘현세>내세[철학] 즉 부등호 방향에 따라 종교와 생활철학 양면성이 있기에 인간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0
깨달음의 모체

0(空) [종교] 제행무상 / 극락왕생

0(零) [철학] 중도·선 /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미래의 종교는 불교라고 단언한 그 뜻을 짐작하게 된다.

불자는 모름지기 일상에서 선업을 쌓아야 하며 그 업보로 극락왕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반면 마음자리를 '0'에 두면 “현세[色]가 곧[卽] 극락[是空]이요, 극락[空]은 바로[卽] 이 속세 이나라[是色]”라는 생활철학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색色을 현세, 공空을 극락 또는 천국으로 해석했음) 나는 이를 '0의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다. 불교는 이처럼 종교와 철학이라는 양날개를 단 비행기와 같다. 그러나 선이라는 날개는 일부 고승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뿐 신비한 베일에 싸여 있어 포교비행을 못한 채 활주로에 2600년 동안이나 대기하고 있다. 붓다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세지는 제행무상/공空사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교의는 BC 6세기경이나 지금이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평범한 상식이다. 붓다가 인류에게 전하고 싶었던 명제

는 생활철학으로서의 행복 황금률인 중도·선이었다. 첫 설법 주제인 중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No where good place /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천국은 없다.” 유토피아의 어원이다. ‘where’의 ‘W’을 앞 날말에 붙이면 “Now here good place /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로 의역이 된다. 우리 마음자리가 좌표평면에서 '0'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누구도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 붓다의 깨달음에는 스승도 절도 없었다. 오직 “마음으로써 마음을 깨달았을 뿐이다.” 붓다는 신심身心의 귀의처였던 한 그루의 보리수가 가정이었던 셈이다. 나는 우리 몸과 마음의 안식처인 가정을 보금寶今자리(필자의 신조어)라고 부르고 싶다. 🌱





엄마라서 행복해요

-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한연희 -

변택주

가정의 달 오월을 맞아 올해로 여섯 번째 맞는 입양의 날 5월 11일을 앞두고, 봄꽃이 앞다투어 피고 새 잎들이 싱그러움을 뽐내는 4월 어느 날,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한연희(55) 씨를 만났다. “저는 어려서 남을 위해 뭘 하겠다는 큰 꿈은 없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 TV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하지 않아서 얼굴 빛도 다른 외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에게라도 엄마가 되어줘야겠다고 마음먹은 한연희 회장은 청혼하는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만 낳고 한 아이는 입양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흔쾌히 좋다고 얘기를 듣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첫

아이를 낳아 기르다보니 애 키우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만약 둘째가 생긴다면 입양을 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덜컥 불임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양까지는 10년이 걸렸다. 남편과 시부모님 설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아들이 10살 때, 절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아 눈길을 끌지 못해 입양이 불가능한 7살 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해서 데리고 오자고 했더니 남편도 난색을 표하고, 아버님도 아이 인상이 호감을 주지 못하니까, 세 살 터울인 우리 아들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를 보호하려고 그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다면 개는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질 테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당신 손자가 빠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첫 입양을 하게 되었다. 그때가 90년 4월 8일.

한연희 회장은 처음 아이를 입양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아이가 가진 기대와 우리 기대가 서로 달라 한 4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 사람 힘으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제 뜻대로 애를 키우려 덤빌 일이 아니라 본디 애답게 크게 뒤야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 조금 거리를 두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기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알고 봤더니 원래 잘하는 아이인데 제 틀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 프레임을 벗어나니까 애도 자유롭게 저도 자유롭게 됐어요.” 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이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군에게 입양을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군은 손사래를 쳤다. “이미 당신과 한 약속은 지켰기 때

문에 더 들어줄 까닭이 없다. 어떻게 부양을 해야 할 지도 내겐 너무 부담이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잃는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부군한테 울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졸랐다. 첫 입양을 한 지 8년 2개월 만에 태어난 지 6달 된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다.

부부는 입양중독(?)

“우리는 낳은 애하고 입양한 애하고 거리감을 운명처럼 가지고 가야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입양한 아이는 제가 낳은 첫 아이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우리부부가 개한테 훌쩍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름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입양한 아이는 7살이었고 애는 6달 밖에 되지 않은 까닭도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혈기왕성한 30대고, 이제는 40대로 인생의미를 알 때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버전인지도 모르죠. 생명이 신기하고 신비롭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이 일어났다. 99년 12월. 가정이 없는 두 형제를 본

부군이 먼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고 제안을 했다. 모든 일이 처음이 어렵다더니, 길이 트이니 부부는 입양중독(?)이라고 부를 만큼 입양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2001년도에 여자아이를 더 받아들이고, 2006년도에는 다른 집에 입양을 갔다가 잘못되어서 되돌아온 지적장애 여아를 입양했다. 2009년도 3월에도 역시 다른 집에 입양을 갔다가 어렵게 된 장애아를 입양하고, 12월엔 사내아이 둘을 데려왔다.

“두 번째 입양에서 우리는 사는 의미라든가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뜰 때 제로로 가자.’는 각오로 애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애가 열이나 되고 말았어요. 31살 된 큰 아들은 결혼해서 손자를 봤어요. 둘째는 28살 태권도 사범이고, 그 밑에 애는 대학교 2학년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넷째는 대학교 1학년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다섯째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맹아학교를 다니는데 고2구요. 그 아래는 중학교 2학년과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3학년 그래요. 자녀 셋

두기를 너무나 두려워서 불임수술했던 사람이 애가 열이라니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밥만 먹여서 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교육을 할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짜리 애는 계속 대학에서 수석을 해서 등록금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무엇보다 애들이 밝게 잘 자라줘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짐이 아닌 울타리

어느 해 부군이 실직을 했다. 앞으로 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고민 끝에 아이들과 회의를 했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겁이 나냐?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 만약 식당을 하게 되면 아이가 많으니까 요리 잘하는 애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누구는 주차요원을 하고, 누구는 홀서빙도 할 수 있고, 우리 식구가 푹푹 뭉치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니고 울타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다시 취업을

해서 그런 일은 생기지는 않았지만요.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대한 부담도 컸고, 혈연이 다른 아이들이 와서 곱게 가꾼 가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50대 중반을 넘으면서 돌아보니 염려했던 일 가운데 상당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선택한 맑은 가난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들이 셋이니 되는데 경제 걱정은 없을까?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죠. 평생 전세방에 사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월세방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도 제로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죽을 때 제로로 가면 좀 어떠냐? 열심히 살아서 국민연금이나, 조그만 보험이라도 들어있으니 장례비는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한 삶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법정 스님 말씀처럼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

난이다.

“우리 애들은 다 개성이 강해요. 틀 속에 가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체능에 능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라는 모습, 제가 보기에는 눈에 거슬리는 게 많죠. 그런데 아이를 존중하는 뜻에서 기다려줘요.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아이들이 40대 50대 또는 60대 70대가 되더라도, 어느 날인가는 제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알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성취를 꼭 살아생전에 내가 보려고 덤빌 일은 아니겠다. 내가 꼭 봐야하겠다는 마음 또한 교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꽃도 벌어지고 잎이 돋는다는 말씀이다.

본디 한연희 회장은 엄마로 살기를 바랐지 사회운동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랬는데 두 아이를 입양하고 두 아이를 더 데리고 올 즈

음, 열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스티브 모리슨(한국이름 최석춘)이라는 이가 찾아왔다. “그 분이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망설이는 제게 당신이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더 찾아서,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사회는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뜻하지 않게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응답

그래서 2000년 1월 15일에 입양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열두 가족이 모였다. 그렇게 시작한 모임이 지금은 천 가구가 넘는 가정의 참여를 하고 있다. 보람은 숫자보다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입양인식을 바꿔놓았다는 데 있다.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입양의 날도 제정이 되고, 2007년도에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더 많아지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그 뒤로 국내입양

이 국외입양보다 조금씩 더 많아요. 입양한 가족들이 더 입양하고 공개입양을 하는 가족들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견주면 놀라운 변화지요. 지난해에는 국내입양이 1400명쯤 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은근히 큰일을 낸 거죠.” 작은 물방울이 혼자 있을 땐 그저 물방울일 뿐이지만 여럿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를 하는데 한 아이한테 월 130만 원쯤 되는 사회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18살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홀로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 결국 비효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견주면 아이한테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 입양 지원은 월 아동 수당 10만 원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13살까지만 주죠. 똑같은 지원으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많이 아쉬워요. 우리가 우리사회에 좋은 인력을 키워낸다는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아끼질 않잖아요.” 양육이 부담스러워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경제력 때문에 입양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한 회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또 시설에서 친권 때문에 입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서, 그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 사회 일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어요?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미래를 밝게 하려면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품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사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대부분이 허상이라는 걸 아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서둘러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실 거라고. 제가 경험자로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친구는 내 부

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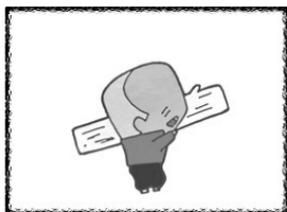
행복바이러스는 홀씨 되어

“우리가 50년이 넘도록 해외입양을 보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니 이제는 해외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이 열린다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이민도 받아들이려는 실정인데 그 아이들도 이민을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입양하면 해외에서 아이들이 오고가는 일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주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사생아라든가 미혼모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입양하려면 어서 해외입양이 체결되어야 해요.” 이들이 퍼뜨리는 행복바이러스는 민들레 홀씨처럼 서로 이끌며 당기면서 세상 속으로 널리 메아리쳐 갈 것이다. 



작은 가시

정 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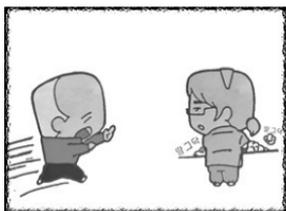


겨울 난방용 펠감은
봄에 준비해야 한다.
왜냐면 이웃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나무일을 하다보면
이놈의 가시가 자주 박힌다.
여간 귀찮고 아픈 것이
아니다.

나에겐 구원자가 있으니
가시빼기의 달인!



작은 가시에도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내 보물 1호다.



묘희원(매월 첫째 일요일)

(활동 이야기: 한인섭 모듬장)

개나리와 벗나무 꽃봉우리가 얼굴을 쪽 내밀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눈과 코, 마음까지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꽃망울들이 터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묘회원 봉사에는 이재원님과 김창원님의 공주 세현이, 조세환님 가족 4명을 비롯하여 모두 22명 회원이 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봉사는 잔디심기와 돌 고르기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죽은 잔디를 캐내고 그 자리에 새 잔디를 심는 잔디심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삽이나 호미로 잔디를 캐내고 그 자리에 조세환님의 두 공주님이 옮긴 새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몇 남자 회원들이 지고 온 흙을 잔디 사이사이에 뿌리고, 잔디를 밟았습니다. 막내인 세현이도 잔디심기에 동참해서 모두 한 가족처럼 즐거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오후 작업은 묘회원에서 새로 마련한 밭에 돌을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선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듯이, 우리 맑

고 향기롭게 더 새롭게 재탄생하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 임진성: 가양동에 거주하는 한00할 아버지는 몸이 아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씀을 가끔 하신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나보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김00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데도 건강이 좋으시다. 손주가 9명인데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신다. 맑고 회원 가운데 한분인 김경미님이 제주도에 가는 길에 할머니 댁에 들려 말벗을 해주고 쌀도 한포대 사다주고 왔다고 한다.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최00님은 불교방송을 통해 최근 모임소식을 들었다며, 지원혜택을 못 받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사업과 봉사활동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마시라 전해드렸다.

● 이찬희: 말벗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께서 전화가 왔는데, 몸을 다쳐서 화장실 청소를 해줬으면 한다는 문자가 와서 당혹스러웠는데, 다음날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연락을 주셨다. 여러 어르신 가운데 자녀들이 취직을 못해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말벗을 하는 대상자 가운데 길상사 신도 분이 계시는데, 최근 어머님 49재를 길상사에서 지내서 동참했다.

● 이순덕: 길음동에 거주하는 김00 할머니께서는 할 일이 없다며 외로워하신다.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늘 적적하신 것 같다. 다행히 식사는 잘 하시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전화를 무척 반가워하신다. 자주 안부전화를 해야겠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팀)

● 길윤자: 3월 21일 오늘이 춘분.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아침 길. 아직 옷깃에 스며드는 바람은 제법 매섭게 차다. 그래도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을 밀어내고 불어오는 바람은 말 그대로 꽃샘바람이다. 어디선가 꽃망울을 투~욱~~툭 터트릴 것만 같은…… 바람~바람~ 우와!!! 봄 바닷가 내음이며 맛이다. 어르신들 드실 찬으로 낙지볶음과 미역

고추장무침과 맑은 콩나물국이 준비되어 있다. 낙지는 연해서 씹을수록 맛이 나고, 요즈음 일본 방식능 유출로 요오드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좋다고 메스컴이 떠들던데 그 으뜸이 미역이다. 두 가지 찬이 매콤하니 국은 맑은 국이 최고, 유난히 통통한 콩나물국이 시원하고 담백하다. 식단도 좋고 조리도 잘 하시고…… 어르신들이 잘 드실 생각에 흐뭇해진다.

나는 늘 배우며 즐겁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를 거울삼을 수 있어 배우며 감사한다. 불자가 아니라도 그 이상 가는 실천행을 하는 회원을 보며 겸허함을 배운다. 열심히 철야기도를 하시는 자매분들을 보면서 신심을 키우고, 늘 나오는 회원을 보면 늘 보아 반갑고, 더러 건너뛰는 회원은 뭘 일 있나 하다가 별일 없어 반갑고… 오랜만에 나오는 회원은 보고 싶었는데 보아서 반갑다. …추위가 길어도 봄은 오고 꽃은 피어난다. 기나긴 겨울이 없어도 봄이, 꽃이 그리 반가울까? 맑고 향기롭게 꽃샘바람 맞으며 봄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을 믿고 고대한다. 4월 25일: 지난 주 노인센터 외관 도

색작업으로 인하여 급식을 한 주 쉬고 2주 만에 센터에 나갔더니 식당 천정에 오색 연등이 달려있었습니다. 서울노인센터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센터어르신들과 봉사자들 후원으로 연등을 다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등을 달며 기원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노인센터 어르신들께서도 더 행복한 날, 더 여유롭고 편안한 날들을 보내시길 기원해봅니다.*^^*

● 노현희: 추위와 매서운 바람에 울겨울은 유난히도 길었다. 잠시 창을 활짝 열고 하늘을 보니 비로소 봄이 문턱에 와있음을 느낀다.

오늘 우리 맑고팀은 B배식을 맡았다. 상큼한 오이와 파래무침, 칼칼한 낙지볶음과 잘 어울리는 구수하고 시원한 콩나물국은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의 봄철 입맛을 돋우기에 손색이 없는 식단이였다. 사실 지난해 배추파동 이후 오르기만 하는 물가 탓에 아직도 김치추가를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넉넉한 배식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우리봉사자들 환한 미소와 인사로 듬뿍 채워진다.

작은 일상에서 얻은 큰 보람과 기쁨 에너지로 오늘저녁은 가족들을 위해 진한 냉이된장국으로 봄 향기를 전해야겠다.

● 최태순: 한두 번씩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던 중 시간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맑고 향기롭게 부산지역 봉사활동에 이어 안국동 노인복지센터에 무료급식 봉사를 접하게 되었다.

언제나 밝게 웃으시는 모듬장님과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회원님들 모습에서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 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하다”고 하신 법정 어른스님 말씀이 생각나고, “건강이 허락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을 닦아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꽃을 피우면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스님 말씀도 늘 마음에 남아 행복하다. 봉사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준 건강한 가족이 있어, 오늘날 이렇게 봉사 릴레이에 동참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박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행복

전도사가 되고 싶다.

서울노인복지센터(수요일팀)

● 4월 6일 :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채소가 비싸서 그런지 반찬을 추가로 드시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께 많이 못 드려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빨리 채소 값이 내려서 원하시는 대로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 4월 20일 : 예쁜 꽃들이 핀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좋은 날씨에 기쁜 마음으로 노인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러 와주셨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나눔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힘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 시작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이 더 행복해 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봉사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2, 3주 일요일)

(활동 이야기 : 홍정근 봉사팀장)

● 4월 10일 :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이

번 주는 짝꿍끼리 손과 팔을 잡고 서로 의지해서 함께하는 역동적인 요가자세를 많이 했습니다. 30분 정도 하고나니 아동들이 지쳐서 휴식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들이 누워있는 동안, 이리저리 안마도 해주고 머리를 두드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동들이 참 편안해 하였습니다. 봉사자 가운데 고3학생들이 꽤 있는데 봉사활동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니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서, 공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끝까지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 4월 17일 : 이번 주 요가봉사선생님이 사찰마음수련회에 들어가셔서, 길상사 수련회에서 선체조 지도봉사를 해주시는 지혜화님이 자원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너무 예쁘다면서 지도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직접 안마도 해주고,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은 요가 선생님이 어떤 동작을 할까 망설일 때, 승가원 김인혁아동이 이 동작을 하자, 저 동작을 하자면서 먼저 자세를 잡는 귀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시험기간이 겹쳐서 봉사자가 조금 적었지만,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활동 이야기 : 흥선주 모듬장)

- 4월 7일 : <커피 할머니 등장> 매주 목요일 1시 30분 수락 양로원에 도착하면 우리들은 각자 흩어져서 방방을 돌아다니며 음악 치료 시간에 같이 가지자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노래 부르러 가요.” 몇 달 전 한 어르신께 말씀드렸다가 혼쫓이 났다. “난 거기 안가. 한 번 갔었는데 노래도 못 부르면서 노래를 하더라.” 하시며 언성을 높이셨다. 그런데 오늘 수업 중에 갑자기 커피를 타가지고 오셔서 여기저기 커피를 나누어 주셨다. 오신 김에 노래 한 곡 하시라 했더니 난 한 번 안 부른다 했으면 안 부른다시며 가버리시는 거다. 순간 우리는 다 같이 눈을 마주쳤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참석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 4월 14일 : <왕할아버지 추모> 수락 양로원 영원한 가수 왕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2주 전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지난 주에도 참석하셔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기운이 없어 보여 할머니들께서 오늘은 노래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기어이 일어나셔서 ‘유정천리’를 멋지게 부르셨는데… 오늘 수업시간은 왕할아버지 추모시간이 됐다. 평소 좋아하시던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며 어르신들 모두 할아버지를 기억하셨다. 그래도 오래 고생하시지 않고 떠나셔서 다행이다. “할아버지 극락왕생하세요.”

- 4월 21일 : 이맘때 수락산은 완전 꽃동산이다. 오늘도 능수벚꽃에 진달래 목련꽃이 우리를 반긴다. 어르신들도 봄기운을 흠뻑 느끼시는 것 같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흥겨운 음악을 틀어주시며 모두 함께 춤을 추자고 하시니 일어나서 춤추시는 어르신들, 앉은 채로 박수치며 몸을 흔드시는 어르신들 모두 얼굴엔 함박웃음이었다. 평소 참석하셔도 입 꼭 다물고 계시던 이00할아버지도 오늘은 ‘나는 17살이에요’를 따라부르시며 어찌나 즐거워하시는지 그 모습이 어린 개구쟁이 모습 그대로다. 어르신들 이제 추운 겨울 떨치시고 흥

겨운 노래 부르시면서 봄맞이하세요.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활동 이야기 : 최두리 모듬장)

● 3월 31일, 4월 1일 : 날씨가 이제 봄날입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꽃바람이 불니다. 하얀꽃, 노란꽃, 빨간꽃... 우리 조리장에도 작고 예쁜 제비꽃이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린 무심했는데... 자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린 기다리는 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맛난 반찬을 조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봉사자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 7, 8일 : 목요일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걱정하던 방사능비가...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양이라 해도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비에 섞여 내린다니 되도록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보살님... 조리장에 안 나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큰 우산을 쓰고 오셨답니다. 정말 이쁘시죠. 이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눈이 부신 아침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난 뒤 경내가 더욱 청아

합니다. 잎새도 더욱 선명합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번 주는 이때쯤만 드실 수 있는 새콤달콤한 풋마늘 초무침과 돼지 불고기를 했습니다. 물과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에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밑반찬하기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 4월 14일 :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 탓에 우리 남들이 봄나들이 꽃구경 가셨나 봅니다. 많이 줄어든 봉사자들 뭉까지 하려니 여기저기 힘이 많이 부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 어찌할까요

다음번 김치엔 이려진 않겠죠.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울모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금’
수여식 보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맑고 향기롭게’ 전 회원 이름으로 지원되는 2011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4월 9일(토) 오후 1시 30분에 길상사 내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장학생 선정식에서는 본모임 각 지부 회원 추천, 성북관내 학교, 종립학교 추천, 교사와 사회복지사 추천받은 학생 가운데 학교와 주거지 동사무소로 학생성품, 가정형편, 외부지원 유·무 확인절차를 거치고, 성적을 참고하여 서울 13명, 경기 7명, 부산 4명, 광주 4명, 전남 1명, 강원 1명 총 3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날 길상사 주지이자, 본모임 이사이신 덕운스님께서는 축하와 격려 말씀으로 장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특성을 보면 꿈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도전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정진해줄 것과 자기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 넓고 깊게 교양을 넓히고 많은 책을 읽고, 마음의 수양을 닦는 노력할 것과 함께 해주신 부모임께도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고,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실 것을 바라는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원주스님께서도 즉석으로 장학생들에게 오기에 대해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고, 사중스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에게는 1년간 수업료와 육성회비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장학증서와 법정스님의 저서, ‘맑고 향기롭게’를 선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1994년, 본 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첫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원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금’ 총 규모는 2010년까지 총 391명 장학생에게 4억 8천 42백 2십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올해 장학금은 약 6천 2십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정스님 저서 기증 현황 보고

법정어른스님 절판 유지를 받들어 반쯤 도서 가운데 일부를 본 법인과 각 출판사에서 공동으로 공공시설 도서관과 군부대는 국군문화진흥원을 통해, 교도소는 법무부 교정국을 통해 일괄 기증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증사업과정에서 출판사 물류센터 사정과 반품과 재발송으로 조금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 기증 대상과 기증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군문화 진흥원
 - 샐터: 홀로 사는 즐거움 외 10종.
총 33,550부 기증
 - 조화로운 삶: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 하라 1종. 총 12,000부 기증
- 법무부 (51개 교도소)
 - 샐터: 홀로 사는 즐거움 외 10종(기관별 10세트 110권). 총 5,610부 기증
- 전국 공익 도서관 총 613기관
 - 샐터: 홀로 사는 즐거움 외 10종.
총 15,378부
 - 조화로운 삶: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 하라 1종. 총 1,164부

● 합계 :

- 샐터 : 총 54,527부
- 조화로운 삶 : 총 13,164부

회원 가입 인증메일, 정보변경 문의는 각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본모임 홈페이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회원정보 수정내역이 관리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회원정보 변경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프로그램상 오류를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께서도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변경을 하지 마시고, 각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길 당부 바랍니다.

또한 본모임 홈페이지는 첫 제작할 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고자, 메일계정 인증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인이 메일을 확인하였을 경우 인증이 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시는 분은

인증메일이 오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포털 사이트마다 스팸메일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다보니 본 모임 가입시 발송되는 인증메일이 스팸으로 등록되거나,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원 가입 후 인증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각 지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빠른 시일 안에 인증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새 단장할 때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반찬 차량 배달 봉사자와 남자 봉사자를 급히 찾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홀로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 반찬을 지원하고, 매월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반찬 조리장에서 남성 봉사자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라 힘이 부족해서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목요일, 금요일 직장을 안가가는 프리랜서 또는 최근 잠시나마 집에서 쉬는 남자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길상사 주차장 옆 맑고

향기로운 조리장으로 달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밀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 반 ~
- 밀반찬 배달 자원 활동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서구 가양2,3동)

2011년 서울(수도권) 숲기행 일정 예정 안내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숲기행은 소중한 자연을 내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단기프로그램이 아니라, 7회에 걸쳐 숲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수도권 숲기행을 진행합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첫째 토요일 진행되며, 5월 숲기행 코스는 서대문구 안산공원입니다. 만나는 장소는 무악재역 3번 출구 앞, 오전 10시입니다.

준비물은 맛있는 도시락과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우산, 카메라, 돋보기, 필기도구입니다.

《 2011년 숲기행 예정지 안내 》

- 5월 - 안산공원 벚꽃 길
- 6월 - 남산
- 7월 - 관악산 무너미고개
- 8월 - 인왕산 기차바위

9월 - 도봉산 원도봉 계곡 망월사

10월 - 용마산~아차산

11월 - 우이령

●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숲기행:

1회 1만 원

● 수도권 외 관광버스를 이용한 경기권 숲기행 시에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 입금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맑고 향기롭게)

《참가자 유의 사항》

1. 수도권 숲기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2. 집결 장소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절대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2~3분 지각도 함께하는 분에게 작은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미리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숲기행은 천재지변 외에는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실시합니다.

4. 행사 당일 일정은 현지 사정상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은 꼭 사무국으로 해주시고, 전화 주실 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를 꼭 알려주세요.

● 회원 만남을 위한 특별 숲기행을 6월, 9월 셋째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들과 함께 야외에서 정성껏 싸운 도시락도 나눠 먹고, 꽃과 나무 그리고

숲에 대해 공부 하고, 쓰레기도 주우면서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 볼까 합니다. 아직 미정입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연락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봉사자가 직접 봉사실적 인증서(vms) 발급받는 방법

본 모임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타 인증기관 자원봉사자께서는 인터넷과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봉사시간을 확인하고, 봉사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이라면, www.vms.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이름을 입력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의자> 특별 시사회

이 시대 큰 스승으로 큰 가르침을 남기고 아름다운 소풍을 떠난 故법정스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 <법정스님의 의자>(감독: 임성구, 제작: kbs미디어) 시사회가 열립니다. 일명 '빠빠용 의자'로 불리었던 '법정스님의 의자'는 법정스님이 불일암에 사시던 시절에 참나무 장작

개비로 손수 만든 의자로, 물건을 일평생 사용했던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의자입니다. 어른스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 <법정스님의 의자>는 스님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진정한 행복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5월 12일 개봉 이전에, 법정어른스님을 따랐던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과 길상사 신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일요일 오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문을 들으시고, 오후에는 영상으로 전하는 맑고 향기로운 어른스님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 시사회 일시: 2011년 5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길상사 설법전
- 상영 시간: 75분

5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 소식지 발송 / 4월 5일(화) / 우편분류 :

4월 28일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 5월 5, 12, 19, 26일 / 금 - 5월 6, 20, 27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5월 1일)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5월 8일) 오전 8시 2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 활동 / 1, 2, 3, 5주 목요일(5월 5, 12, 19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가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5월 2, 9, 16, 23, 30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5월 4, 18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



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5월 8, 15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둘째 일요일(5월 9일), 오후 1시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 벽제국군병원(고양시 덕양구) 내 법당 점심 조리봉사 / 둘째, 셋째 일요일(5월 8, 15일)
- 외부봉사 모듬장 회의 / 5월 25일(넷째 수요일), 오후 7시 / 서울모임 사무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5월 4, 11, 18, 25일)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 / 극락전 뒤 세계일화 소모임 방, 비누는 맑고 조리장 / 선착순 7~8명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는 2011년부터 매주 의류재활용 리폼에 자원 활동해 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운영됩니다.



부산모임(051-898-2672~3)

5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4 / 11 / 18 / 25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4 / 11 / 18 / 25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와 시설정화
7 / 14 / 21 / 28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5 / 19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 병동 목욕봉사
12 / 26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5 / 12 / 19 / 26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6 / 13 / 20 / 27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6 / 13 / 20 / 27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6 / 13 / 20 / 27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6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7일(토)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10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8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8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7일(금)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8일(토)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5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주 수요일(5월 18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 (5월 24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4 / 2, 9, 16, 23, 30일)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5월 5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5월 13, 27일)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5월 6, 13, 15, 20, 27일)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5월 25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대구모임(053-753-8883)

5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 매주 수요일(4 / 11 / 18 / 25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 매월 셋째 금요일(20일) 오후 7시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 매월 둘째 토요일(14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 매월 셋째 화요일 (17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 ▷ 매월 첫째 화요일(3일) 11시부터



광주모임(062-236-3129)

5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 에서는 매월 1, 3주 금요일(5월 6, 20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들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5월 11일(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사무실 법정기념관





여기는 길상사

<길상사 연등접수>

5월 10일(화)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길상사에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는 법회를 봉행하며, 길상사 경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주지스님 법문과 길상사에서 마련되는 행사들을 통해 우리들이 참된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환히 밝힐 연등을 현재 접수중입니다. 올해도 길상사에 밝혀지는 연등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불자님들이 성의껏 연등공양을 올리시고 원하시는 발원문을 직접 쓰시면 정성껏 달아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힐 불자님들은 성의껏 동참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및 길상음악회 개최>

길상사에서는 부처님오신 날인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극락전에서 주지스님을 모시고 봉축법회를 봉행하며

오후 7시부터 극락전 앞마당에서 길상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하안거결제 법회와 90일 백중기도 입재>

길상사에서는 5월 17일(화)(음 4월 15일) 주지스님을 모시고 하안거결제 법회와 90일 백중 아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5월 주말 선 수련회 안내>

길상사 주말 선 수련회는 참가자들 수준에 맞춰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갖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해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매월 셋째 주말 (5. 21~22)
- 구참반: 매월 넷째 주말 (5. 28~29)

<자원봉사자 모집>

길상사에서는 초파일 자원봉사자와

수련회, 소식지 발송작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종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법회 후에는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새신도 교육’이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후 1시~2시 30분에 설법전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

1주차: 불교란 무엇인가?

2주차: 예불문 공부

3주차: 나를 깨우는 108배

4주차: 생활 속 수행

5주차: 스님과의 대화

• 지도: 포교국장 광우스님

<5월의 길상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초하루 3일기도 / 5월 3일 (음 4.1)
극락전 10시

• 보름 미타재일기도 / 5월 17일 (음 4.15)
극락전 10시

• 지장재일 / 5월 20일 (음 4.18) 지장전 10시

• 관음재일 / 5월 26일 (음 4.24) 극락전 10시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다라니기도 / 5월 7일 (토) 오후 8시 반

• 삼천배 기도 / 5월 14일(토) 오후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람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5월 3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5월 16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5월 9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5월 24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5월 2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중고등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손으로 말합니다

“가끔 내 손을 들여다보면서 고마워할 때가 있다. 나무와 찬물을 다루다보니 손결이 거칠어졌지만 이 손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을 길어 오고, 땀감을 마련하고,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내 삶 자취와 생각을 이렇게 문자를 빌려 표현해 주는 것이 손이다.” 법정 어른스님 말씀입니다.

우리 손은 때리기보다는 껴안기 좋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격성향을 띤 포유류들은 사람들과처럼 서로 끌어안을 수 없답니다. 우리가 공격성향을 띤 동물이라면 아름다운 손가락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 몸은 자비롭고 온화한 우리 본디성품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식구들은 손으로 말합니다. 맑고 나눔 봉사회원 손은 자애로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똑딱! 손을 눌러서 결식아동과 홀로 어르신을 위한 반찬도 조리하고, 전화를 걸어 외로운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 외로움을 풀어드리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지어 올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 밭도 매고, 잔디도 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메주를 씻어 드리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찾아 함께 놀아주고 요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똑딱! 맛있는 떡볶이며 떡꼬치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살갑고 도타운 정을 가진 맑고 가족 분들 자비로운 손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손으로
소중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넘어진 이를 일으켜주고,
목숨이 소중한을 일깨우며,
꿈을 이루고,

소리 없이 사회를 움직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단단한 의지를 드러내며,
한마음으로 뭉치고,
무거운 삶을 짊어지고,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